

LGD, 40인치 ‘필러투필러’ 양산 글로벌 SDV 시장 공략 속도낸다

차량 전반 가로지르는 초대형 패널 로컬 디밍 기술 첫 적용... 전력 절감 소니혼다모빌리티 ‘아필라’ 탑재

LG디스플레이가 업계 최초로 40인치 ‘필러투필러(Pilar to Pilar, P2P)’를 양산하고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산된 디스플레이는 일본 소니와 혼다가 함께 만드는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인 ‘40인치 필러투필러’를 양산한다고 24일 밝혔다. 필러투필러는 자동차 운전석 앞유리 기둥(필러) 왼쪽 끝에서 조수석 오른쪽 끝까지 가로지르는 초대형 패널로 이에 차세대 모빌리티용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SDV가 소프트웨어로 차량 성능을 제어하고 운전 편의성을 향상하면서 다양한 기능 조작용이 용이한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의 40인치 필러투필러는 소니혼다모빌리티의 첫 전기차인 ‘아필라’에 탑재된다. 아필라의 인공지능(AI) 기반 운전 보조 시스템을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다.

이를 기반으로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 가운데 10인치 이상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43.0%에서 올해 73.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대형 필러투필러 기술은 업계 기술력을 증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초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 설루션 ‘필러투필러(Pilar to pillar, P2P)’를 소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명한 셈”이라며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안전과 연결되는 만큼 기존 패널 대비 엄격한 신뢰성 평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형 필러투필러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디스플레이를 이어 붙이면 작은 틈이 생겨 운전시 물입감을 떨어트리기 때문, 이에 LG디스플레이의 대형 필러투필러는 하나의 패널로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면서 그간 한계점을 극복했다.

LG디스플레이의 40인치 필러투필러는 ▲물입감 높은 대형 사이즈 ▲부드럽고 정확한 터치 기능 ▲극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구성을 내구성을 자랑한다.

구체적으로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제품에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SPM 모드’를 적용했다. 조수석 앞 디스플레이를 통해 동승자가 영화를 감상하거나 게임을 해도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기

술이다. 그러면서도 디스플레이의 고화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또 기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공조 시스템이나 음악 감상 기능을 활용할 때는 네비게이션 화면이 안보이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등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40인치 필러투필러를 이용하면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에 개인화·맞춤형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발열이 적고 전력 소비를 절감한 ‘로컬 디밍(Local dimming)’ 기술도 최초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주행 효율을 한층 높였다. 또 터치 가능한 초대형 화면을 통해 각종 기능을 제어해 차량 내 물리적 버튼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미래형 모빌리티 디자인 가능성을 열었다.

또 영하 40도 혹한부터 영상 85도 초고온까지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필수적인 신뢰성과 내구성도 확보한 셈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화학-한샘, 친환경 주방가구 사업 맞손

성형자재 개발 MOU 체결

LG화학이 한샘과 손잡고 친환경 주방가구 소재 시장을 정조준 한다.

LG화학은 지난 21일 한샘 송과점에서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LG화학이 식물성 원료 기반의 고기능성플라스틱 ASA(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 소재를 공급하면 한샘은 주방가구 ‘에끌라(e'clat)’ 표면재로 ASA를 사용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주방가구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ASA는 SAN(Styrene Acrylonitrile copolymer)과 아크릴고무로 만들어 고온에 견디는 내열성 외에도 내후성이 우수해 가정용 가구 등에 사용된다. 높은 가공성과 내구성으로 변색이 쉽게 발생하지 않아 주방가구, 불박이장 등에 적합한 소재이다.

상반기 출시 예정인 ‘에끌라’에는 LG화학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LETZEro)’가 적용돼 출시된다.

‘렛제로(LETZero)’는 Let(하게하다, 두다)과 ‘Zero(0)’의 조합으로 LG화학이 지난 2021년 론칭한 친환경 브



지난 21일 LG화학 김스티븐 전무(오른쪽)와 한샘 고영남 연구소장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LG화학

랜드로 친환경 제품 영역을 대폭 확대해 오고 있다.

한샘 고영남 연구소장은 “대부분의 가구용 소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시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탄소배출량도 늘어나게 된다”며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는 “한샘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ASA가 가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렛제로(LETZero)의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사장 등 이사후보 추천

정대형 기획지원본부장 등 4명

포스코퓨처엠이 24일 엄기천 사장(사진) 등 4명을 사내외이사 후보로 새로 추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엄 사장과 정대형 기획지원본부장을 신규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을 엄 사장은 포스코 PosLX(리튬)사업추진반 팀장, 해외법인장(중국·베트남), 철강기획실장, 마케팅전략실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사업부장에 선임된 2차전지소재사업을 이끌어 왔다.

정 본부장은 포스코 경영전략실장,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실장 등 전략분야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포스코퓨처엠 경영기획본부장에 선임돼 회사



재무와 전략 업무를 총괄해 왔다.

포스코퓨처엠은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추천했다.

허 후보는 30여년 경력의 경제 및 국제분야 전문가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 국내외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았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천성래 포스코홀딩스사업시너지본부장이 추천 명단에 올랐다. 천 본부장은 포스코 열연선재마케팅실장, 해외법인장(인도)과 포스코홀딩스철강팀장, 탄소중립팀장을 역임했다. 폭넓은 사업경험과 소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포스코퓨처엠의 미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용 기자

조선·해운 패권경쟁 심화... 시장 재편 가능성

美, 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추진 운송비용 영향... 韓 반사이익 기대

미국이 중국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조선·해운업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섰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 확산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시장재편 기대감을 키우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공고문을 통해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톤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안에는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달러(약 21억 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도 마련됐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해상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미국 선적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 최소 기준 비율은 조치 시행 2년 후에는 3%, 3년 후 5%, 7년 후 15%까지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미국 제품들이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 뒤 나온 것이다. 이번 조치는 내달 24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USTR의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 선박이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면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일 선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강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신규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해군의 함정 건조 및 수리·보수 등 분야에서 한국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은 지난 2024년 기준 295척이었던 군함을 오는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 비용은 1조750억달러(약 1562조원)로 추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운송 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미국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그간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미국의 조선 역량이 감소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진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실제 이행여부를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전삼노,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평균 임금 5.1% 인상 등 담겨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베이스 업 3.0%·평균 성과인상률 2.1%)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금교섭을 본격 시작한 올해 1월 7일 이후 약 48일 만이다. 지난해부터 이어 온 단체교섭도 이번 임금교섭과 병행하여 마무리했다.

회사는 전체 직원에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함께 노사공동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3차녀 이상 직원에 대해 정년 후 재고용도 제도화한다.

삼성전자와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2024년 임금협약까지 완료했다. 전삼노는 3월 5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앞으로도 교섭대표노조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